

대학생의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김 나 영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김 향 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초기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에게 이성교제는 해당 시기의 발달적 과업과 맞닿아 있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이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 중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22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 자기노출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은 자기노출에 의해 부분매개 되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는 6개월 이상 진전된 커플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완벽주의적 특성을 강요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담이 실재하는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관계 내에서 불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 자기노출을 꺼려하고 이는 곧 관계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즉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역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이성관계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자기노출, 이성관계 만족도

* 본 논문은 김나영(2014)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한국 임상심리학회 2015년 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음.

† 교신저자 : 김향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다산관 334호

Tel: 02-705-7971, E-mail: hyangkim@sogang.ac.kr

청소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성교제 행동은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적 과업과 맞물려 있으며, 심리적 발달과 개인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송명자, 1995). 이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 서로를 보는 관점, 자신의 미래 계획 및 기대 등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정체감을 찾으려 한다(민경환, 2002). 이성교제를 통해서 친밀감이 공고화되면 이성관계가 결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은 이를 토대로 Erikson(1959)이 언급한 중기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인 생산성 획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설기문(1993)에 의하면 대학 상담 장면에서 이성교제 및 관련 문제들이 내담자에 의해 자주 언급된다고 하며,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성교제의 상대방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나리, 2002). 따라서 이성관계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구함으로써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인관계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관계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대상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를 '어떤 계약적 의미나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해 위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으로 친구관계와 구별되는 미혼 남녀의 관계(강진희, 2011)'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성관계 만족이란 이성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Bradbury, Fincham과 Beach(2000)는 만족을 통해

관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만족을 '이성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Hendrick, 1988)'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성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Burns(1980)는 완벽주의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비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불가능한 목표에 대해 강박적인 압박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과 성취로 평가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초기에는 완벽주의를 단일차원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점차 완벽주의에는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다차원적인 접근(Hewitt & Flett, 1991)이 지지를 얻게 되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는 완벽행동이 향하는 방향과 완벽행동을 부과한 대상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social-oriented perfectionism)로 구분된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높은 개인적 기준과 완벽함을 얻으려는 동기를 의미하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김유미, 2017). 대인관계에 대한 완벽주의의 영향 역시 하위차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비판, 빈정거림이나 보복 등의 부정적인 관계 대처 방식과 정적인 상관을 가졌으며(Hewitt & Flett, 1993),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애적, 착취적, 권위적, 지배적인 성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배우자를 힐난하는 경향과 관련되었다(Hewitt et al., 1991). 또한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낮은 성적 만족감과 연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Habke, Hewitt, & Flett, 1999). 특히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는 파괴적인 관계 반응을 보이는 경향, 낮은 상호간 적응 및 다양한 집착적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lett & Hewitt, 2001). 국내에서는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가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김유미, 2017), 완벽주의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배인선, 2004; 전진실, 2005)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일반적인 완벽주의(*general perfectionism*)가 친밀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이며, 이성관계 측면에 초점을 둔 완벽주의가 친밀한 관계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업무성과와 적합성이 높은 요인이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간접적인 영향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Matte & Lafontaine, 2012). 실제로 여성에게 있어, 일반적인 완벽주의에 비해 이성관계에 초점을 맞춘 양자관계 완벽주의(*romantic perfectionism/dyadic perfectionism*)가 관계 적응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Shea, Slaney, & Rice, 2006).

이성관계 완벽주의는 일반적인 완벽주의와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일반적인 완벽주의가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과 같이 개인내적인 완벽주의적 신념과 관계가 있는 반면, 이성관계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완벽주의적 믿음과 관계가 있다(Arcuri, 2013). 즉, 이성관계 완벽주의란 이성관계에서 개인이 이성 상대방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상대방이 결점 없는 상태를 유지하길 기대하며,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점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송은주, 이지연,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도입하여 이성관계에서 드러나는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관계만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간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Habke, Hewitt, Fehr, Callander와 Flett(1997), Stoeber(2012)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의 세 차원을 차용하여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의 대상을 '이성관계의 상대방'으로 단어만 바꾸어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Shea 등(2006)은 양자관계 완벽주의 척도(*Dyadic Almost Perfect Scale, DAPS*)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는 기존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에 상응하는 '상대'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 즉 파트너에 대한 기준, 파트너가 정돈되어있기를 기대하는지의 여부, 파트너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Matte 등(2012)은 이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파트너에게 갖고 있는 완벽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가 수행된 시점에는 국내에서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는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Matte 등(2012)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뒤 사용하였다.

Flett, Hewitt, Shapiro와 Rayman(2001)의 연구에서 이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 의사소통, 믿음, 관계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는 파괴적인 관계반응(관계의 종결, 무시, 무관심)을 하는 경향, 낮은 관계 적응, 집착적인 측면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eber(2012)는 상대지향적 완벽주의가 관계만족도 및 장기적인 관계전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완벽주의의 각 하위요인들이 직접적으로 관계 적응 및 파괴적 관계 반응(Flett et al., 2001), 관계만족도와 장기적인 관계전념(Stoeber, 2012)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나, 완벽주의가 준거변인인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자기노출을 설정하고 이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기노출은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감정, 경험을 포함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의사소통의 형태로(Jourard & Lasakow, 1958),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민혜림, 2007).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내용은 피상적인 것으로부터 친밀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이동하며(한덕용, 1985), 의사소통의 넓이(논의하는 주제들의 다양성)와 의사소통의

깊이(논의하는 주제들의 개인적 중요성) 역시 관계발전과 함께 향상될 수 있다(홍대식, 2002).

친밀한 관계에서의 자기노출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Betsy와 Joseph(1984)은 자기노출의 깊이가 클수록 개인과 상대방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Maureen(1963)은 좋아하는 감정이 그 상대방에게 자신을 노출하게 하며, 그러한 자기노출은 상대방을 더욱 좋아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발전하게 되지만(옥경희, 2000),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이미련, 1998). 또한 자기노출을 잘하지 않게 되면 친밀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혜련, 손은정, 2012).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들은 자기노출을 많이 할수록 이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며(정유정, 2005), 자기노출이 결혼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정은, 2012).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자기노출은,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이나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노출과 완벽주의 성향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노출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은폐와 완벽주의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 다수의 연구(신지은, 이동귀, 2011; 김정애, 이민규, 2014; Kawamura & Frost, 2004)에서 자기은폐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사이에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박소현(2012)은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자

기은폐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 관계가 긴밀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자기노출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며 이러한 경향은 이성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 드러나는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성관계 내에서의 완벽주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상대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로 기술하였으며, 기존 연구를 언급할 경우 일반적인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한 것에 한해서 '자기지향적/타인지향적/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세 차원 중에서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것은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이다. 이 때 전자는 이성관계 내에서 스스로 완벽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후자는 이성관계 상대방이 자신에게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한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자기노출이 매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진 완벽주의와 타 요인들 간의 관련성 연구를 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를 개인 내에서 작동하는 완벽주의 차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적응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을 탐색

하거나(Klibert, Langhinrichsen- Rohling, & Saito, 2005) 내현적/외현적 동기 및 시험불안과의 관련성(Stoeber, Feast, & Hayward, 2009), 성공과 실패에 따르는 감정들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탐색하고 있다(Stoeber, Kempe, & Keogh, 2008). Stoeber(2014)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상기의 두 차원과는 차별화된 특수한 성격적 특징(자기애, 마키아벨리즘, 정신병리, 사회적 지배욕구)과 연관이 있음을 밝힌 바가 있다. 이처럼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다른 두 차원의 완벽주의와는 작동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근간을 둔 상대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역시 비슷한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자기지향적/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두 차원에 대해 탐구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애기간에 따른 매개효과의 차이도 추가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관계의 초기에는 서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탐색이 주로 이루어지며, 라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진다(홍대식, 2002). 이 때문에 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매개효과에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의 이성관계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들이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정을 자기노출이 매개하는지를 탐색한다.

둘째, 관계를 맺은 기간에 따라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알아본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둘째 주부터 약 3주 간 실시하였다. 학부생 228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현재 이성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엔 가장 최근의 이성교제 상대방을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2.2세이며 표준편차는 1.86이었고, 남학생 123명, 여학생 10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당시 교제 중이었던 학생은 92명, 교제하지 않고 있던 학생은 136명(남 74명, 여 62명)이었다.

도구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

Wiebe와 McCabe(2002)의 관계 완벽주의 척도(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를 각색한 Matte 등(2012)의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으로,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완벽주의를 측정한다. 두 개의 하위척도는 각각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 높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를 번안하기 위해 두 명의 심리학 전공 석사생과 한 명의 이증언어 사용자(심리학 전공 석사생)가 참여했고, 번역 및 역번역의 각 과정을 임상심리 전공 지도교수가 감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

도의 신뢰도 계수는 남녀 각각에서 .73과 .84였고(Matte et al., 2012), 남녀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는 .66으로 나타났다.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

Hewitt과 Flett(1989)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 문항 상에서 '나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을 이성관계 상대방을 칭하는 단어('애인')로 바꾸어 설문지에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중 동일하게 번안이 되는 하나의 문장을 삭제한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자기노출 척도(Jourard Self-Disclosure Questionnaire, JSDQ)

Jourard 등(1958)의 자기노출척도를 서병완(198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JSDQ는 총 40문항으로 6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노출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0점은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함', 4점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음'을 나타내며, X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표현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그가 나에게 묻더라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나타낸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어색해진 문항은 JSDQ의 원래 항목을 찾아 번역한 뒤 사용하였다. 서병완(1989)이 구한 신뢰도 계수는 .92이다.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문자와 숫자를 혼합하여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점수를 변환하였다. 'X'는 앞으로도 상대방에게 알려줄 의사가 없으므로 0점, '0'은 현재 상대방이 알지 못하지만만

잠재적으로 관계가 지속될 경우 알려줄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1점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자기노출 척도는 0~5점 척도로 바꾸어 6점 척도 방식으로 채점되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5이다.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제작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이성교제에 적합한 표현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하위척도 12개에서 미혼남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7개 하위척도 93문항을 유소영(2000)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소영(2000)의 요인분석을 토대로 이유진(2006)이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수정한 41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편의성을 위해 진위척도(예/아니오)를 5점 척도로 바꾸었고, 문항 개정 시 표현이 어색해지는 일부 문항의 빈도부사(때때로, 종종)를 삭제하였다. 이유진(2006)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5이었다.

통계적 분석

먼저 이성관계 완벽주의, 자기노출, 이성관계 만족도가 각각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인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자기노출 및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이성관계 완벽주의 및 자기노출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Sobel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 과

각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와 왜도, 변인 간 상관관계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는 상대방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52$). 또한 상대방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자기노출, 이성관계 만족도는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상대방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는 다른 두 변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자기노출 $r=-.246$, 이성관계 만족도 $r=-.425$),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439$).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2와 4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

먼저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노출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는 자기지향적

표 1. 주요 변인 기술 통계치 및 상관 분석 결과

	1	2	3	4
1.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			
2.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352**	-		
3. 자기노출	-.028	-.246**	-	
4. 이성관계 만족도	-.047	-.425**	.439**	-
총점 평균	28.41	43.92	119.96	139.04
(표준편차)	5.88	10.06	28.41	25.32
척도 평균	4.06	3.14	3.16	3.39
(표준편차)	0.84	0.72	0.75	0.62
왜도	.116	.014	-.167	-.014
첨도	-.159	-.095	-.145	-.122
신뢰도	.66	.80	.95	.95

* $p < .05$, ** $p < .01$, *** $p < .001$

주. 1=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2=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3=자기노출, 4=이성관계 만족도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자기노출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은 유지한 채 이성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2단계의 독립변인에 자기노출을 추가 투입

하였다. 각 회귀분석은 선형성 가정, 정상성 가정과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았고,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는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도

표 2.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R^2	B	β	t	F
1단계 독립→매개	SORR→SD	.001	-.136	-.028	-.422	.178
2단계 독립→종속	SORR→RS	.002	-.204	-.047	-.713	.508
3단계 독립, 매개→종속	SORR→RS SD→RS	.193	-.151 .389	-.035 .437	-.585 7.282	26.826***

* $p < .05$, ** $p < .01$, *** $p < .001$

주. SORR=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SD=자기노출, RS=이성관계 만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설 1에서 예상했던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3단계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효과는 대부분 자기노출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노출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1단계에서는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자기노출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인들을 추가 투입하였다. 각 회귀분석은 선형성 가정, 정상성 가정과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았고,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변인으로 자기노출을 투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고, 2단계에서의 회귀계수값이 감소함에 따라($\beta = -.403 \rightarrow \beta = -.324$), 자기노출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

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Sobel 검증 결과,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노출의 부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3.278, p < .01$.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는 이성관계 만족을 16.2% 설명하였고, $R^2 = .162, p < .001$, 자기노출의 매개를 통해 이성관계 만족을 26.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R^2 = .261, p < .001$,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노출이 부분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애기간에 따른 매개효과 차이

추가적으로,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애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의 경우, 평균 연애기간은 39.5개월로 긴 편이었으나 표준편차가

표 3.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R ²	B	β	t	F
1단계 독립→매개	OPRR→SD	.070	-.734	-.264	-4.113	16.92***
2단계 독립→종속	OPRR→RS	.162	-.990	-.403	-6.470	41.87***
3단계 독립, 매개→종속	OPRR→RS SD→RS	.261	-.795 .281	-.324 .324	-5.354 5.364	38.01***

* $p < .05$, ** $p < .01$, *** $p < .001$

주. OPRR=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SD=자기노출, RS=이성관계 만족

표 4. 상대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가 자기노출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6개월 미만, n=113)

단계	변인	R ²	B	β	t	F
1단계 독립→매개	OPRR→SD	.011	-.295 (.265)	-.105	-1.117	1.247
2단계 독립→종속	OPRR→RS	.111	-.872	-.334	-3.731	13.921***
3단계 독립, 매개→종속	OPRR→RS SD→RS	.261	-.765 .362 (.077)	-.293 .389	-3.553 4.720	19.435***

* $p < .05$, ** $p < .01$, *** $p < .001$

주. OPRR=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SD=자기노출, RS=이성관계 만족

12.66으로 변산이 컸다. 연구에서 현재 연애 중에 있지 않은 참가자(136명)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연애기간이 대부분의 연인이 관계를 지속하는 평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그 시기에 연인들이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최빈치인 6개월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귄 기간이 만 6개월을 넘지 않는 연인들

의 경우(표 4)에는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t(113) = -1.117$, ns, 따라서 전체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사귄 기간이 만 6개월을 넘은 연인들의 경우(표 5)에는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노출이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z = -2.383$, $p < .05$.

표 5. 상대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가 자기노출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6개월 초과, n=104)

단계	변인	R ²	B	β	t	F
1단계 독립→매개	OPRR→SD	.130	-.861 (.221)	-.360	-3.897	15.189***
2단계 독립→종속	OPRR→RS	.255	-1.223	-.505	-5.910	34.931***
3단계 독립, 매개→종속	OPRR→RS SD→RS	.316	-.993 .268 (.089)	-.410 .265	-4.646 2.999	24.261***

* $p < .05$, ** $p < .01$, *** $p < .001$

주. OPRR=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SD=자기노출, RS=이성관계 만족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와 자기노출 경향성, 그리고 이성관계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의 효과가 연애기간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는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따라서 가정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관계 대처 방식과 연관된다는 결과(Hewitt et al., 1993)를 얻은 것처럼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긍정적인 결혼 적응을 예측하기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Habke et al., 1997; Flett & Hewitt, 2002). 후자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높은 관계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abke et al.,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어떤 관련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Haring, Hewitt과 Flett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대인관계 행동 패턴과 연관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만성 통증 환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 본인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과 배우자 모두의 결혼적응과 상관없이 없었다(Hewitt, Flett, & Mikail, 1995).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도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즉 애인이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은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자기노출을 저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lett, Hewitt, & DeRosa, 1996), 이러한 경향은 연인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대개 자신을 공개했을 경우에 이어질 수 있는 평가나 비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 스스로를 드러내길 꺼려하며, 이러한 것이 낮은 관계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자신의 완벽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부각시키고,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을 하지 않거나 회피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Flett et al., 2002).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것이라 여겨지는 개인적인 정보(성향, 감정 등)를 관계 내에서 공유하지 않으면, 이로부터 유발되는 마찰이나 갈등이 종단에는 관계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을 통해 자기노출의 부분매개효과가 연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연애기간에 따른 매개효과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애정발전에 관한 수레바퀴이론(Reiss, 1960; 홍대식, 2002 재인용)에 따르면, 애정관계는 4단계 즉, 라포(rapport), 자기공개, 상호의존성, 친밀성 욕구의 충족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포 단계에서 두 남녀는 처음으로 만나 친근한 관계를 맺고, 라포가 확립되면 남녀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개인적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자기공개 단계에서 연인들은 개인적 정보, 가치관 및 신념들을 공개하고, 이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잘 어울리는지를 판단한다. 상호의존성 단계가 되면 남녀는 공동의 과제에 있어 협동하고 서로 의존하게 된다. 만약 한 쪽이 이러한 공동 활동을 싫어할 경우, 그 사람은 관계를 끝내게 된다. 일련의 단계를 거친 남녀는 친밀성 욕구의 충족 단계에 들어가며, 이 단계에서 남녀는 서로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서로의 비밀을 지키려 한다(홍대식, 2002).

애정발전에 관한 수레바퀴이론에서 각 단계가 어느 시기 즈음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 최빈치를 통해 추출한 만 6개월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추측된다. 라포가 성립되는 시기(만 6개월 이하)에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연인들은 그보다 연애기간이 긴 연인들에 비해 자기노출의 정도 및 이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연애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가 발전하고, 발전된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노출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자기노출이 증가할수록 이성관계 만족도

역시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금운(200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김금운(2003)은 이성관계의 지속기간을 단기(3개월 이하), 중기(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장기(6개월 이상)로 나누어 각 집단의 차이점을 탐구하였는데, 단기집단에 비해 장기집단에서 자기노출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애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다음에야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자기노출을 매개하여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중 이성관계에 특화된 척도를 연구에 차용했다는 점이다. Shea 등(2006)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일반적인 완벽주의에 비해 이성관계에 초점을 맞춘 양자관계(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여성의 관계 적응을 보다 잘 예측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양자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해외에서는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연구에 이용하고 있었다(Lopez, Fons-Scheyd, Morúa, & Chaliman, 2006; Shea et al., 2006; Matte et al., 2012; Stoeber, 2012). 본 연구가 수행된 시점에도 국내에서는 대인관계 및 양자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배인선, 2005; 이원경, 2011; 최인영, 2016), 이러한 연구들은 관계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완벽주의 성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관계만

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연구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이성관계 만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자기노출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완벽주의가 관계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불안정 애착(Flett et al., 2001), 부적응적 대처기술(Haring et al., 2003) 등이 언급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와 자기노출의 관련성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박소현, 2012; 신지은 등, 2011; Kawamura et al., 2004)과 달리 이전엔 주목받지 못한 자기노출이라는 변인을 통해 완벽주의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와 자기노출 간에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 추후 연구에서 자기노출이라는 변인을 완벽주의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한 번 더 입증된 셈이다. Habke 등(199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관계 만족에 대한 중요한 예언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관계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은 타인에게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박소현, 2012; Burns, 1980, 1983), 자기노출이 저해되면 친밀감,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박혜련 등, 2012; 정유정, 2005). 이는 중국에 서로의 관계만족을 함께 해치는 결과로 치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성관계에서 양자의 관계만족도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기 때문이다(Haring et al., 2003; Stoeber, 2012). 자신의 관계만족을 해치는 것이 결국 상대방의 관계만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에서 개인의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상대방으로부터 기인하기보다는 개인내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원희와 안창일(2005)의 연구에서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Hewitt 등(1993)의 연구에서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 간에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라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굴레이며, 이 굴레에 묶일 경우 자멸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해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상담 장면에서 이성관계 상대방이 자신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어서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내담자에게, 상대방의 성향을 점검하도록 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가진 완벽주의적 성향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관계만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서울 소재 1개 대학의 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일찍 취업을 한 초기 성인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에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윤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하위척도 중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를 비롯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낮았다. 또한 척도를 사용하기 전에 이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자기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송은주 등, 2016), 자기높은기준, 자기불일치, 타인높은기준, 타인불일치 등 네 개의 하위차원을 통해 이성관계에서 작동하는 완벽주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진 척도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각각의 완벽주의 차원에 따라 대인관계 표현 양식이 달랐다는 점이 시사된 만큼,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대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를 연구에 포함시켰을 경우 연구 내용 및 가설이 풍부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상대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그 성향을 가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고, 이성관계의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쌍 자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였다.

타인(상대)지향적 완벽주의가 부부 및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Hewitt 등(1995)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배우자를 가진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지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느꼈으며, 양자관계의 적응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지향적 완벽주의가 자신의 관계만족도와 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Stoeber, 2012)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부부관계나 이성관계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될 수 있고, 이러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지각된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배우자나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 결혼생활의 어려움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Eidelson & Epstein, 1982; Flett et al., 2002).

이처럼 상대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는 이성관계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한 성향을 가진 개인 스스로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에서 함께 측정하였다면 완벽주의의 하위척도별 영향력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모든 차원을 함께 측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의 역할을 보다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본 모집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대학생 개인만을 연구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연인 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지향적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같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인관계에 있는 실제 커플들을 모집하여 이러한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함께 측정한다면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반영된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최빈치를 기준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집단을 구분하였지만, 이성관계의 발전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함께 측정하였다면 단순히 시간의 진전에 따르는 관계 발전이 아닌 질적 측면의 발전단계를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을 단일 척도 상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로부터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 차원을 포함한 척도의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김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23-139.
- 김금운 (2003). 연애관계의 결별을 예측하는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 (2017).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 이민규 (2014). 자기은폐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63-1086.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범문사.
- 민혜림 (2007).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 정서적 회피 및 자기노출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현 (2012). 성인애착, 역기능적 완벽주의, 정서억제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배인선 (2004).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완 (1989). JSDQ를 통한 한국 중, 고생의 자기표출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2(1), 95-104.
- 설기문 (1993).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 청소년 상담이론모형의 모색. 한양

-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1, 25-52.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송은주, 이지연 (2016).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 연구*, 17(2), 61-79.
- 신지은, 이동귀 (2011).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자기 은혜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2), 55-79.
- 육경희 (2000). 인간관계훈련이 자기노출과 인간관계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7, 1-25.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련 (1998). 자기노출과 소외와의 관계: 간호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7(1), 136-150.
- 이원경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 만족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7(2), 74-90.
- 이원희, 안창일 (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9-36.
- 이유진 (2006). 대학생의 부모애착, 부모 간 상호작용과 이성관계만족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정은 (2012).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명임, 이희경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1), 67-83.
- 전진실 (2005). 완벽주의 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정 (2005). 대학생의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감.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영 (201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덕웅 (1985).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심리학회지*, 2(2), 169-191.
- 홍대식 (2002). 연애와 결혼 심리학. 박영사.
- Arcuri, A. (2013). *Dyadic perfectionism, communication pattern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couples*. University of Windsor.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tsy, E. T., & Joseph, P. S. (1984). Self-disclosure, intimacy, and the depenetr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1), 84-90.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Burns, D. D. (1983). The spouse who is a perfectionist.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 17, 219-230.
- Eidelson, R. J., & Epstein, N. (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15-720.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 1-171.
- Flett, G. L., & Hewitt, P. L. (2001). Perfectionism, beliefs, and adjustment in dating relationships. *Current Psychology, 20*(4), 289-311.
- Flett, G. L., & Hewitt, P. L. (2002). 완벽주의: 이론, 연구 및 치료 (박현주, 이동귀, 신지은 공역). 학지사. (번역본은 2013에 출판).
- Flett, G. L., Hewitt, P. L., & De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143-150.
- Flett, G. L., Hewitt, P. L., Shapiro, B., & Rayman, J. (2001). Perfectionism, beliefs, and adjustment in dating relationships. *Current Psychology, 20*(4), 289-311.
- Habke, A. M., Hewitt, P. L., Fehr, B., Callander, L., & Flett, G. L. (1997). Perfectionism and behavior in marital interactions[Abstract]. *Canadian Psychology, 38*, 75.
- Habke, A. M., Hewitt, P. L., & Flett, G. L. (1999). Perfectionism and sexual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1*, 307-322.
- Haring, M., Hewitt, P. L., & Flett, G. L. (2003). Perfectionism, coping, and quality of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143-158.
- Hendrick, S. S. (1988). A generic measur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93-98.
- Hewitt, P. L., & Flett, G. L. (1989).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Canadian Psychology, 30*, 339.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 - 65.
- Hewitt, P. L., Flett, G. L., & Mikail, S. F. (1995). Perfectionism and relationship adjustment in pain patient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335-347.
- Jourard, S. M., & Lasakow, P. (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56*(1), 91-98.
- Kawamura, K. Y., & Frost, R. O. (2004). Self-conceal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2), 183-191.
- Klibert, J. J., Langhinrichsen-Rohling, J., & Saito, M. (2005).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elf-oriented vers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2), 141-156.
- Lopez, F. G., Fons-Scheyd, A., Morúa, W., & Chaliman, R. (2006). Dyadic perfectionism as

- a predictor of relationship continuity and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543-549.
- Matte, M., & Lafontaine, M. F. (2012). Assessment of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5(2), 113-132.
- Maureen, P. F. (1963). Self-disclosure and expressed self-esteem, social distance and areas of the self revealed. *The Journal of Psychology*, 56, 405-412.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36(4), 717-731.
- Shea, A. J., Slaney, R. B., & Rice, K. G. (2006). Perfectionism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Dyadic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9, 107-125.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41(4), 813-823.
- Stoerber, J. (2012). Dyadic perfectionism in romantic relationships: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ongterm commi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 300- 305.
- Stoerber, J. (2014). How other-oriented perfectionism differs from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Abstrac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6(2), 329-338.
- Stoerber, J., Feast, A. R., & Hayward, J. A. (2009).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test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5), 423-428.
- Stoerber, J., Kempe, T., & Keogh, E. J. (2008). Facets of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elings of pride, shame, and guilt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506-1516.
- Wiebe, R. E., & McCabe, S. B. (2002). Relationship perfectionism, dysphoria, and hostile interpersonal behavio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 67-91.

1차원고접수 : 2018. 07. 20.

심사통과접수 : 2018. 11. 01.

최종원고접수 : 2018. 12. 0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between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Na Young Kim

Sogang University

Hyang Sook Kim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self-oriented romantic perfectionism and partner-prescribed romantic perfectionism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In particula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omantic perfectionism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was examined.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measuring self-oriented and partner-prescribed romantic perfectionism, self-disclosure tenden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administered to 228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or have ever been in romantic relationship.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elf-disclosure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prescribed romantic perfectionis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lso, this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for participants who has been in the romantic relationship more than six months. On the other hand, self-disclosure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romantic perfectionis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concerns about partner's perfectionistic expectation can leads to dis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In addition, psychological burden caused by partner-prescribed perfectionism can prevent the individual from disclose him- or herself, which impedes positive romantic relationship.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elf-oriented romantic perfectionism, Partner-prescribed romantic perfectionism, Self-disclosure, Relationship satisfaction